

번호: OP-G-008					
제 목	장애인 의료서비스 미충족필요의 크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easuring Unmet Needs with Disabled People and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Unmet Needs				
저 자 및 소 속	이진용1), 박종혁1), 김부경1), 김윤1), 김용익1), 신영수1), 이광선2), 안중호2), 심현준2), 문남주3), 박종화3), 이범석4), 김완호4), 이정은4), 홍지영5), 박종연6), 김성옥6), 이상이6)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3)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4)국립재활병원 재활의학과, 5)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Jin Yong Lee1), Jong Hyock Park1), Bu Kyung Kim1), Yoon Kim1), Yong-Ik Kim1), Youngsoo Shin1), Kwang-Sun Lee2), Jung-Ho Ahn2), Hyun-Joon Shim2), Nam Ju Moon3), Jong Hwa Park3), Bum-Suk Lee4), Wan-Ho Kim4), Jeong-Eun Lee4), Jee-Young Hong5), Chongyon-Park6 1)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3)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Ophthalmology, 4)National Rehabilitation Hospital,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5)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6)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분 야	의료관리 [장애인]	발 표 자	이진용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장애인 등록 이후에 장애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기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관련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이후 장애관련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규모(필요의 크기), 그 중 적절한 장애관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규모(미충족 필요의 크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장애인 등록 이후 장애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필요의 크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하였다.</p> <p>방법: 2003년말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 중 장애유형별 장애인 규모, 장애중증도에 따라 성,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층화계층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추출된 지체장애 132명, 뇌병변장애 57명, 시각 및 청각장애 각 61명 등 총 31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의료서비스 필요 측정도구는 각 장애유형별로 의학적 처치 및 수술, 보장구, 재활치료, 적절한 추후관리 등 4개 항목으로 개발하였고 해당 과 전문의가 대상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필요 및 미충족필요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미이용 이유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p> <p>결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규모는 의학적 처치 및 수술 61.1%, 보장구 51.6%, 재활치료 43.1%, 정기진료 91.0%였으며 이 중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의학적 처치 및 수술 33.2%(미충족 필요: 66.8%), 보장구 39.4%(미충족 필요: 60.6%), 재활치료 10.4%(미충족 필요: 89.6%), 정기진료 33.9%(미충족 필요: 66.1%)였고 4가지 항목을 모두 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21.1%(미충족 필요: 78.9%)에 불과하여 장애인등록 이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대부분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30.6%, 경제적 부담 22.1%, 받아야 하는지 모름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p> <p>결론: 장애인등록 이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둘째,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장애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셋째, 본인부담금 인하, 급여확대 및 급여기준조정, 장애인 관련 수가 개발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p>					